

양심적 병역거부



김민 소장의
당당평평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지,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뉴스에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로 가볍게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이 형성된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 안정성과 유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생긴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제각각 다르기에 개인보다는 공공의 안정화와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들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후천에 분단 중인 국가이다. 북한의 행태는 절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4대 의

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세상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나. 종된 삶던 국가가 제시하는 의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과연 합당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법안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확정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전에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양심적 판단이 없고 종교와 신념이 없어서 군복무를 마친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여론에 의해 언론재판이 행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명백히 삼권분립이 갖추어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청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사법권까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러바치면 해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거 조선 태종 때 신문고의 부활인가. 당시의 신문고도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올려 상소하는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복레(僕隸)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品官)·향리(鄕吏)·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사주(使喚)하여 고발하게 하

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적·제도적 혼란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원칙이 견고하기를 바란다. 정권과 여당의 인기몰이와 선심성 행태가 국가의 기간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제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을 위협해서야 그것을 어떻게 국가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것이며 그 안에 역사와 고유성이 보존되어야 하며 정체성이 명확해야만 한다. 대내외적으로 안 그래도 복잡한 대한민국을 더 구태여 더 혼란스럽게 하는 정당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반역이다. 지켜온 것은 앞으로도 지켜지는 나라, 국민에게 한 가지도 명확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아무말대잔치를 하지 않는 정부, 기본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태일리폴리정치연구소장



한화생명, 장기기증 유가족·이식인 캠프 개최

한화생명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한화리조트 설악 소라노에서 '생명의 물결 1박 2일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장기기증 유가족과 장기이식을 받은 이식인 90명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현대상선, 쪽방촌 찾아 연탄나눔 봉사

현대상선이 소외계층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2일 서대문구 홍제2동 쪽방촌 일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200장의 연탄을 전달하고 고장 난 연탄보일러를 세트로 교체하는 등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현대상선



대한항공, 캐나다 노선 취항 30주년 기념행사

대한항공이 지난 2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과 토론토 공항에서 각각 서울~캐나다 노선 개설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밴쿠버, 토론토 공항에서는 30년 동안 대한항공을 이용해준 승객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각 공항에서 30번째로 탑승하는 승객에게 인천 왕복 일반식 항공권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한항공 밴쿠버 임영돈 지점장(오른쪽 네번째), 김창우 공항지점장(왼쪽 첫번째)과 객실승무원, 밴쿠버 공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한항공

한국지엠, 저소득층 위해 릴레이 연탄나눔 봉사

인천 연탄은행 등에 2.2만장 기증
이달 4회 저소득 가정에 배달 예정

한국지엠이 지역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 지원을 지원하는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한국지엠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마음재단과 함께 2만2000장의 연탄을 인천 연탄은행과 사단법인 보령선한이웃에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한국지엠 사회봉사단은 11월 한달간 4회에 걸쳐 이 연탄을 인천과 보령의 저소득 가정에 배달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인천 부평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연탄 배달 자원봉사에는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과 부평지역 임직원 및 가족,



한국지엠 카허 카젠(Kaher Kazem) 사장이 임직원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 배달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지엠

시민 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저소득 가정 50세대

에게 가구당 200장씩 연탄을 배달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국제펜한국본부 '세계한글작가대회' 개최

문체부 등 후원 6~9일 경주 일대서
세계한글문학-민족혼의 요람 주제

국제펜한국본부(손해일 이사장)는 제4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6~9일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의 후원으로 경주해백컨벤션센터, 경주예술의전당과 경주시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제4회 세계한글작가대회는 신달자 조직위원장(시인), 김홍신 집행위원장(소설가), 신경림 조직위원(시인), 이종걸 조직위원(국회의원), 권재일 조직위원(한글학회 회장), 김종규 조직위원(삼성출판박물

관 관장), 한국문학 주요 5단체 단체장과 사무총장 등을 총 망라한 51인으로 집행부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는 '세계한글문학-민족혼의 요람(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대주제로 ▲한글문학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 ▲세계한글문학의 민족정체성 ▲한민족문학의 어제, 오늘, 내일 ▲한글문학, 세계화의 길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0개국 51명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국내외 문인과 경주시민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기아차, 'THE K9' 멤버십 고객 뮤지컬공연 초청

THE K9 뮤지컬 인비테이션 이벤트

기아자동차가 오는 27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엘리자벳' 공연에 THE K9 멤버십 고객을 초청한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THE K9 뮤지컬 인비테이션' 이벤트는 THE K9 고객들이 품격 있는 문화 활동을 통해 보다 프리미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기아차는 총 600쌍(1200명)의 고객을 초청할 예정이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의 삶을 그리는 작품이다. 실존 인물과 판타지적 요소의 환상적인 결합을 통해 관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1992년 비엔나 초연 이후 12개 국가에서 공연되며 누적 관객수 1100만을 돌파한 세계적인 흥행 대작 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에는 옥주현(엘리자벳), 박형식(죽음), 강홍석(루케니), 손준호(요제프 황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해 명연기를 펼친다.

한편 THE K9 멤버십 고객 외에 응모 기간 중 '살롱 드 K9'을 방문한 THE K9 관심고객 20쌍(40명)에게도 주첨을 통해 THE K9 멤버십 초청행사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고리원전 지역사무소장 김은환 △운영지원과장 김상현 △원자력심사과장 임시우

◆한국사사전략연구소 △한국사사전략연구소 소장 겸 이코노텔링 발행인 고윤희

부음

▲손인씨 별세, 남호철(주)에드일렉코 회장, 남기자·남정자·남숙희·남호숙씨(모친상), 박춘권 전 더케이서울호텔 본부장, 김재욱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명수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박진

수(주)큐시스 대표(빙모상), 남기찬(주)에드일렉코 본부장(조모상), 박범준 파이낸셜뉴스 차장(외조모상) = 4일 오전 4시 20분,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2-2290-9442

▲정옥조씨 별세, 최병규(서울예술단 지도위원) 씨 장모상 = 2일 오후 10시 51분,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5일 오전 10시, 031-787-1500

▲박점순씨 별세, 이성기(전 고용노동부차관) 씨 모친상 = 2일 오후 10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5일 오전 6시, 장지 경남 의령군 용덕면 선영, 02-2227-7500